

新 호남 義兵 이야기 <16> 의병장들의 화려한 승전의 기록 ⑥

의병장들에 시호·벼슬 내려 삶과 업적 기리다

임란 의병장들에 대해 조정은 시호와 벼슬을 내리거나 더 올려주며 그 공을 기렸다. 특히 시호는 가문의 큰 영광으로 여겼다. 또 정려나 사당을 지어 배향하게 하면서 후손과 지역민들에게 충신의 모범으로 삼았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 새로 설치되거나 복원된 사당 대부분이 걸모습만 과거 그대로 외진 곳에 자리하고, 돌보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방문객들의 발길 역시 뜸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고경명 '충렬', 김천일 '문열'
최경회 '충의', 김덕령 '충장'
임계영, 병조판서로 증직
변사정, 사헌부 장령 추증
정려·사당 지어 배향
후손에 충신의 모범으로 삼아



선조가 1630년 고경명에게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아들 종후, 인후, 월파 유팽로, 청계 안영 등과 함께 배향하기 위해 1601년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에 지은 포충사. 1868년 전국적으로 사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 충신의 사당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시호는 왕·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한다.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적이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완화,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증직돼 시호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국왕을 제외한 시호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는데, 시호를 받을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인척 등이 행장(行狀)을 작성해 예조에 제출하면, 봉상시에서 세 가지 시호를 정해 홍문관에 보낸다. 여러 관원들이 논의해 이를 이조에 넘기고 국왕이 낙점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순신의 경우 봉상시에서 의논한 세 가지 시호는 '충무(忠武)·'충장(忠壯)·'무목(武穆)'이었다.

고경명에게는 1630년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학예 문관 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등에 추서되고, 의정부 좌찬성으로 가증되기도 했다. 1630년 함께 전사한 둘째 아들 인후에게는 예조참의가 추서돼 나중에 의정부 영의정으로 가증되고, '의열'이라는 시호가, 큰아들 종후는 도승지로 추서됐다 이조판서로 가증되고, '효열'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01년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에 포충사를 짓고 선조가 편액을 하사했으며, 월파 유팽로, 청계 안영도 배향됐다. 1868년 전국적으로 사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 충신의 사당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김덕령에게는 1785년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면서 덕령이 태어난 석저촌을 충효리라고 부르고 비를 세웠다. 1661년 신원이 복구되고 1668년 병조참의에 추증됐다. 1678년 벽진서원에 제향됐고, 1681년 병조판서에 가증됐다. 형 덕흥은 지평, 동생인 덕보는 집의로 추증됐다. 1788년에는 좌찬성에 가증됐다.



1785년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김덕령을 기리기 위해 1975년 조성된 충장사.



1633년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진 최경회와 문흥현, 을묘해변 때 순국한 조현 등을 모신 화순 능주의 삼충각.



1618년 '문열'이라는 시호를 받은 김천일을 모시기 위해 진주성 안에 지은 창열사. 그는 의정부 영의정에 가증됐다.

조정에 1804년에야 알려졌다. 왕득인,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은 지평에, 왕의성에게는 좌승지에, 고정철, 오종은 호조좌랑에 각각 추증되고, 충효사에 배향됐다. 모의장 최대성에 대해서는 1750년 우산 안방준 등 보성지역 사림 36명이 그의 공적을 적은 상소를 올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충사 건립이 허락된 바 있다. 보성 충절사에 대성과 그의 아들 언립·후립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퇴은당 엄결은 1649년 자헌대부 병조판서, 동생인 언서와 엄경은 각각 통정대부 병조참의와 승정원 부승지, 엄홍립은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각각 추증되고 정려를 세워 배향했다.

오전 김경수는 장성에서 3차례 거병했는데, 이후 군자감정, 공조참판, 의금부동지사, 중추부동지사 등에 임명됐으나 출사를 거부하고 장성에 머물렀다. 열사 최옥은 숙종 때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추증되고 정려를 세워 배향했다. 소포 나덕명은 순조 때 윤광보가 장계를 올려 정려가 내리고, 나주의 금호사, 총장사, 금산의 금곡사, 종성의 창렬사, 무안의 소포사 등에 각각 배향됐다. 금산대첩비에도 덕령의 사적이 기록돼 있다. 해광 송제민은 1789년 사헌부 지평에 추증됐으며, 윤암서원에 배향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